

한국 성형외과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및 발간기간

황 건^{1,2} · 최혁규¹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¹, 의학전문대학원 BK21사업단²

Impact Factors and Publication Times of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Kun Hwang^{1,2}, Hyuk Kyu Choi¹

Department of ¹Plastic Surgery and ²Center for Advanced Medical Education by BK21 Project,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s of the authors' analysis were to assess the values that plastic surgery journals demonstrate in terms of the standardized measures created by the Korea Medical Citation Index, an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lues and the turnaround time of these journals.

Methods: The overall indexes of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JKSPRS), J Korean Soc Aesthetic Plast Surg (JKSAPS), J Korean Cleft Palate-Craniofac Assoc (JKCPRA) were compared with those of journals related with Korean plastic surgery using the following parameters: impact factor, cited half-life, total articles, and the number of journals.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were compared with journals from relative fields. In addition, an evaluation of all original articles published in 2007, assessing the time intervals from submission to publication was conducted for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and various journals which were related with plastic surgery.

Results: The number of articles for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for 2006 ranged from 19 for JKCPRA to 149 for JKSPRS. The time interval from submission to publication of an article among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for 2007 ranged from 73.7 days for JKSAPS to 176.2 days for JKSPRS. The variation in impact factor of JKSPRS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05 increased

from 0.084 in the year 2002 to 0.168 in 2005. But the impact factor in 2006 has fallen to 0.112.

Conclusion: JKSPRS demonstrated comparatively high overall index values and a short turnaround time in comparison to relative journals. To improve the status of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members of Korean plastic surgeons should quote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and adjust key word to MeSH. The title written down in Korean should use medical terminology published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Key Words: Serial publications, Korea, Surgery, Plastic

I. 서 론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1974년에 대한성형외과학회지(이하 대성지)를 창간한 이래, 2007년 말 현재 지령 34권을 맞고 있다. 2001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되었으며, 2004년에는 등재지가 되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자학회인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이하 미성지)를 1995년 창간하여 지령 13호를 맞고 있으며 2005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되었다. 자학회인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에서도 2000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이하 두성지)를 창간하여 2006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되었다.

이외에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참여하고 구독하는 학술지로는 대한수부외과학회의 대한수부외과학회지(이하 수부지)와, 대한화상학회의 대한화상학회지(이하 화상지), 대한창상학회의 대한창상학회지(이하 창상지) 등이 있다.

2000년도에 들어 국외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국내 학술지의 투고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저자들도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 학술지가 아니면 투고를 기피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연구를 영향력 있는, 즉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학술지에 투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술지의 편집인은 자신이 맡은 학술지의 영향력을 올리고 우수한 논문을 유치하기 위

Received January 2, 2008

Revised February 19, 2008

Address Correspondence: Kun Hwang,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and Center for Advanced Medical Education by BK21 Project,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7-206 Sinheung-dong, Jung-gu, Incheon 400-711, Korea. Tel: 032) 890-3514 / Fax: 032) 890-2918 / E-mail: jokerhg@inha.ac.kr

* 본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11-E00366).

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2000년부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에서는 한국의학학술지인용개발사업보고서(KoMCI, Korea Medical Citation Index)를 만들어, 의편집에서 운영하는 자료기지 KoreaMed(www.koreamed.org)에 등재된 약 100여종의 학술지가 타 의학학술지에 얼마나 인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

우리 성형외과학 분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저자가 논문을 투고하고 발간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하는 것은 학술지의 잠재적인 저자들 뿐 아니라 독자들도 궁금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성형외과 분야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및 발간기간을 알아보고,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등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II. 재료 및 방법

가. 대상

위의 학회지 중 KoreaMed 등재학술지인 대성지, 미성지, 두성지 및 미등재지인 수부지, 화상지, 창상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한안과학회의 대한안과학회지(이하 대안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이하 한인지), 대한악안면학회의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지(악성지), 대한구강외과학회의 대한구강악안면학회지(구강지)도 분석하였다.

나. 방법

1) 학회지의 규모

학회지들의 현재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도의 연간 발행회수, 연간 발표된 총 논문수, 호당 평균 논문

수를 찾아보았다.

2) 논문 투고에서부터 원고 채택까지의 기간, 그리고 발간되기까지의 기간

2007년도에 발간된 논문을 투고에서 원고 채택까지의 평균기간, 원고 채택에서부터 출판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였다. 대성지, 대안지, 한인지, 악성지의 경우는 학회지에 실린 각 논문마다 쓰여 있는 기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성지와 두성지에는 이 기간들이 쓰여 있지 않아 직접 각 학회지의 편집인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였다. 투고에서 원고 채택까지의 평균기간, 원고 채택에서부터 출판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였다.

3) 영향력지수 및 변화

KoMCI 인용문헌 분석 데이터에서 각 학회지의 2006년도의 영향력지수를 조사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영향력지수의 변화도 관찰하였다.

4) 피인용 반감기(cited half-life)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KoMCI 인용문헌 분석 데이터에서 피인용 반감기(cited half-life)를 알아보았다.

III. 결 과

가. 학회지 규모

대성지는 2006년 한 해 동안 여섯 번 발간되었으며 총 149개의 논문이 수록되어 호당 평균 24.8개의 논문이 실렸다. 미성지와 두성지는 둘 다 일 년에 두 번 발간되는데 호당 평균 논문수가 미성지는 16.5편, 두성지

Table I. Overall Indexes for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in 2006

Journal	No. of issues	No. of articles	Articles/ issues	Impact factor	Cited half-life (year)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6	149	24.8	0.112	-
J Korean Soc Aesthetic Plast Surg	2	33	16.5	0.070	-
J Korean Cleft Palate-Craniofac Assoc	2	19	9.5	0.018	3.875
J Korean Ophthalmol Soc	12	301	25.0	0.253	7.729
Korean J Otolaryngol-Head Neck Surg	12	229	19.1	0.113	6.625
J Korean Assoc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6	62	10.3	0.049	6.583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6	75	12.5	0.123	5.834

Dashes(-) indicate that the impact factor was not mentioned.

Table II. Comparison of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and Relative Journals

Journal	Submitted-accepted (days)	Accepted-published (days)	Submitted-published (days)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89.1	87.1	176.2
J Korean Soc Aesthetic Plast Surg	40.0	33.8	73.7
J Korean Cleft Palate-Craniofac Assoc	61.1	89.6	150.7
J Korean Ophthalmol Soc	195.8	79.9	275.7
Korean J Otolaryngol-Head Neck Surg	126.8	111.9	238.8
J Korean Assoc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91.3	29.6	120.9

Table III. Impact Factors for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and Relative Journals, 2002 to 2006

Journal	2002	2003	2004	2005	2006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0.084	0.090	0.130	0.168	0.112
J Korean Soc Aesthetic Plast Surg	0.220	0.105	0.140	0.083	0.070
J Korean Cleft Palate-Craniofac Assoc	-	-	0.027	0.046	0.018
J Korean Ophthalmol Soc	0.333	0.325	0.200	0.299	0.253
Korean J Otolaryngol-Head Neck Surg	0.169	0.115	0.169	0.147	0.113
J Korean Assoc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0.094	0.076	0.076	0.073	0.049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0.112	0.107	0.109	0.104	0.123

Dashes(-) indicate that the impact factor was not mentioned.

는 9.5편이었다. 대한지와 한인지는 매달 발간되어 일년에 열두 번 발간되었다. 약성지, 구강지는 대성지처럼 2006년 동안 여섯 번씩 발간되었다. 위 유관학회지중 대한지만이 호당 평균 논문수가 25개로 대성지와 비슷하고 나머지는 모두 20개 미만으로 대성지보다 호당 평균 논문수가 적었다(Table I).

나. 논문 투고에서부터 원고 채택까지의 기간 (심사기간), 발간되기까지의 기간

대성지의 투고에서부터 원고 채택까지의 기간(심사기간)은 89.1일이고 미성지는 40일, 두성지는 61.1일이었다. 대한지 195.8일, 한인지 126.8일에 비해 약 40-100일 빨랐다. 원고채택에서부터 출판까지는 대성지가 87.1일, 미성지는 33.8일, 두성지가 89.6일이 걸렸다. 투고에서 출판까지 기간은 대성지가 176일로 가장 길었으며, 미성지가 73.7일로 가장 짧았다. 대한지와 한인지의 투고에서부터 발간까지의 기간이 각각 275.7일, 238.8일로 이는 대성지의 기간보다 약 60-100일 정도 더 길었다. 구강지의 경우에는 자료가 없었다(Table II).

다. 영향력지수 및 변화

2006년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는 0.112이었고 미성지는 0.070, 두성지는 0.018로 대한성형외과학회지와 자학회지들 중에 대성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지수를 나타내었다. 유관학회지 중 대한지의 영향력지수는 0.253, 한인지는 0.113, 약성지는 0.049, 구강지는 0.123으로 대성지는 대한지보다는 낮고 한인지, 구강지와 비슷한 수준이며, 약성지보다 높았다(Table I).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는 2002년에 0.084, 2003년에 0.090, 2005년에 0.168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0.112로 감소하였다(Table III). 미성지는 2002년에 0.220으로 대성지보다 높았으나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6년에는 0.070이 되었다. 두성지는 2004년 이전의 영향력지수에 대한 자료는 없었으며, 이후로도 0.05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관학회지 중 대한지의 영향력지수는 2004년에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0.2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인지의 경우, 영향력지수가 0.15 주위에서 약간씩 증감하였다. 구강지는 0.1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약성지의 영향력지수는 0.1 이하이면서 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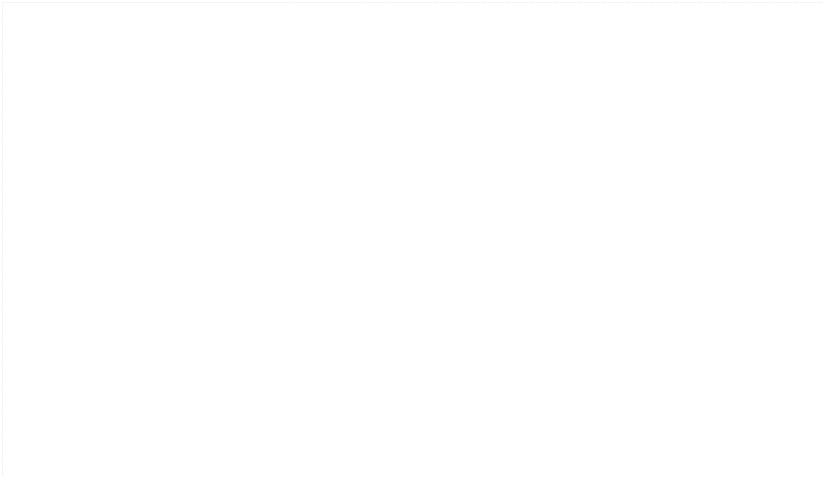


Fig. 1. Impact Factors for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2002 to 2006.



Fig. 2. Impact Factors for Korean Plastic Surgery Journals and Relative Journals, 2002 to 2006.

씩 감소하고 있다(Fig. 1, 2).

라. 피인용 반감기(cited half-life)

대성지와 미성지의 피인용 반감기 자료는 KoMCI에 없었다. 두성지의 피인용 반감기가 3.875이었다. 유관학회지중 대안지가 7.729로 가장 높았다. 한인지와 약성지는 각각 6.625와 6.583으로 서로 비슷하였다. 구강지의 피인용 반감기는 5.834이었다(Table I).

IV. 고 찰

대성지는 2006년에 6회 발간되었으며 총 149개의 논문이 수록되어 호당 평균 24.8개의 논문이 실렸다. 미성지와 두성지는 일 년에 두 번 발간되는데 호당 평균 논문수가 각각 16.5편과 9.5편이었다. 대성지의 호당 논문수는 대안지(25.0)와 비슷하며, 한인지(19.1), 구강지(12.5)보다 높았다. 이는 대성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가 된 이래 각 회원들의 투고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논문을 영어로 된 외국학술지에 투고하는 현실에서, 회원수가 우리학회보다 많은 한인지나 구강지보다 연간 논문수가 많다는 것은 성형외과학이 발전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학술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성지의 투고에서부터 원고 채택까지의 기간(심사기간)은 89.1일이고 미성지는 40일, 두성지는 61.1일이었다. 대안지 195.8일, 한인지 126.8일에 비해 약 40-100일 빨랐다. 대성지가 2006년부터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우편으로 왕복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편집위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심사를 요청하여 심사를 독촉한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는 2002년에 0.084, 2003년에 0.090, 2005년에 0.168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0.112

로 감소하였다. 미성지는 2002년에 0.220으로 대성지보다 높았으나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6년에는 0.070이 되었다. 두성지는 0.05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관학회지 중 대안지의 영향력지수는 0.2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인지의 경우, 영향력지수가 0.15 주위에서 약간씩 증감하였다. 구강지는 0.1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약성지의 영향력지수는 0.1 이하이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대성지의 영향력지수가 성형외과보다 규모가 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한인지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구강지와 비슷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어떻게 하면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첫째, 자체인용률을 높여야 한다.² 이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할 때 저자들이 필요한 대성지의 논문을 인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서지사항을 알려주며 인용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지 등 영향력지수가 큰 유관학회지의 저자들이 대성지를 쉽게 검색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성지의 저자들이 논문 주제어(Key word)를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만든 의학주제어(MeSH)에 맞출 필요가 있다.³ 또한 한글 제목을 유관학회지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최근발행 의학용어집에 맞추어야 한다. 가까운 예로 대한안과협회에서는 '눈꺼풀'을 사용하는데 우리 학회의 저자들이 논문 제목을 '안검'이라고 쓴다면 안과 의사들이 '눈꺼풀'로만 검색하는 경우 검색에서 누락되며, 결과적으로 인용되지 못하게 된다.

V. 결 론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는 2002년에 0.084, 2003년에 0.090, 2005년에 0.168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0.112로 감소하였다.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는 성형외과보다 규모가 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한인지(0.113)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구강지(0.123)와 비슷하였다.

대성지의 영향력지수를 높이려면 첫째, 자체인용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할 때 저자들이 필요한 대성지의 논문을 인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서지사항을 알려주며 인용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지 등 영향력지수가 큰 유관학회지의 저자들이 대성지를 쉽게 검색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성지의 저자들이 논문 주제어(Key word)를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만든 의학주제어(MeSH)에 맞추고, 한글제목에 대한 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맞추어야 한다.

REFERENCES

1. Lee CS: The development of citation indicators of Korean medical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3: 27, 2002
2. Yang HJ, Chung HT, Choi JS, Kim DG: Citation of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 Korean Neurosurg Soc* 33: 226, 2003
3. Lee CS, Mun HW: A comparison study of subject words of Korean medical papers: Author keywords vs MeSH terms assigned by MEDLIN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7: 67, 2000